

# 땅속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소 점검 서울시 땅꺼짐 사고 미리 막는다

### 명일동 지반침하사고 1년 맞아 예방·대응·제도개선 등 대책 강화 GPR 탐사 확대, AI 신기술 도입 노후 하수관로 총 1000km 정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의 모습. /뉴스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1년을 맞아 예방·대응·제도 개선을 담은 지하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GPR 탐사 확대와 관측망 구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반침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히는 GPR 탐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관측망과 AI·IC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해 지하 공동을 조사하는 GPR 탐사 대상과 범위를 지난해 9595km에서 16423km로 약 1.7배 확대했다. 이를 위해 GPR 탐사 인력은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차량형 6대와

전동형 1대, 핸드형 3대 등 장비도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한다.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 점검한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km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년 200km씩 총 1000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땅속 센서로 지반 변동을 실시

간 측정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확대하고, AI·ICT 기반 계측 신기술 도입으로 관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관측공 40공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50공을 추가 설치하며, 2029년까지 총 25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학교세무사' 도입... 세금·경제교육 강화

서울 초·중학교 60교에 세무사 배치  
학생·학부모에 금융·세무교육 제공

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서울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금과 경제를 배우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 초·중학교 60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연계해 운영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와 중학교 40교다. 약 1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속 세금의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직업·진로 탐색과 관련된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현하며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학교세무사 제도"라며 "세무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금·경제 교육과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

# 경기도, 2030년까지 25개 지방도 건설

도로건설에 5년간 총 1조6133억 투입  
혼잡도 해소 등 대규모 도로망 확충  
전력망 설치... 반도체 산업 지원도

설하고 파주 영장~영장(2.85km) 구간이 선정됐다. 두 노선은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총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15개 시군 25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담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23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교통혼잡 해소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평택 팽성대교~오성신리(3.77km) 확장공사와 용인 덕성~목리(2.26km), 김포 고정~귀전(1.68km) 구간 신설공사가 확정됐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력망 도로 공동건설' 사업의 핵심 노선으로는 지방도 318호선 구간의 이천 금당~신필(3.19km), 이천 수산~행죽(3.82km), 용인 독성~백봉(5.53km), 용인 백암~설성(9.76km) 등이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도로건설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년간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25개 노선(85.52km)을 선정했다.

도는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를 중심으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67km 확장과 용인 역북~서리 3.06km를 추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형 도로'에는 포천 기지~길명(2.89km) 구간을 선

도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를 중심으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67km 확장과 용인 역북~서리 3.06km를 추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형 도로'에는 포천 기지~길명(2.89km) 구간을 선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3월 학력평가 실시... 통합사회·과학 첫 출제

오늘 전국 고등학교 대상 학평 시행  
고1·2, '2028 수능 개편안' 첫 적용

진로진학 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다.

평가한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고3에게는 올해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고1·2에게는 2028 수능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3은 2022학년도부터 이어진 통합수능 체제 아래 마지막 수능을 치르는 학년이며, 고1·2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수능 개편안을 처음 적용받는 학년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고3은 현행 통합수능 체제로, 고1·2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틀로 각각 치러진다.

고2에게는 탐구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 출제되는 동시에, 2028 수능 실제 시험범위가 처음 적용되는 시험인 셈이다. 고1·2의 사회·과학탐구영역은 국어와 수학처럼 상대평가로 치러지며,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성적이 산출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17개 시도 1948개교에서 약 122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대학수능능력시험 적응력 제고,

고3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고1의 경우,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 상대평가를 처음 경험하는 시험이다. 시행 시기상 모든 영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된다. 중학교까지 절대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받아온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처음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1·2는 2028 수능 개편안의 틀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이현진 기자

# 경희대, 교육·연구·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은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희대는 이를 통해 경영정보 시스템을 넘어 중역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수준의 활용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K-DX 시스템은 교무, 학사, 산학, 연구 등 교내 주요 자료를 수집해 143개의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총장과 부총장 등 최고경영진의 전략 수립은 물론, 부서장과 학·원장 등의 주제별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경희대 소속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23일 경희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0 | 해질 / 18:47

3월 24일(화)  
음력 : 2월 6일

수도권 날씨  
7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0/16
- 동두천 2/17
- 가평 0/17
- 양평 1/18
- 용인 6/16
- 평택 3/18
- 수원 6/16
- 안성 7/14
- 파주 1/15
- 서울 7/17
- 백령도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자국민들에 주의령... "이란 연계 단체 공격 가능성"  
▲日정부, 유가 급등 대응 위해 예비비 7조5000억원 지출 방침 /사진 뉴시스

▲파네타 전 美 국방 "트럼프, 이란전 진퇴양난... 동맹국 불참은 자업자득"  
▲젤렌스키 "美와 러우전쟁 종식 후속 논의 가능... 외교 작동 중"

▲IEA "중동사태,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비축유 추가 방출 협의"  
▲中, 다량 위성 탑재 운반로켓 해상 발사 성공... 상업우주 활동 본격화